

# 未來産業社會 이끌어갈 중堅技術人의 전당



## “졸업생 긍지 갖고 社會에 뿌리내리는데 최선”

高度産業社會가 필요로 하는 中堅技術人 양성을 목적으로 1979년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統合, 단기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출범한 工業專門大學.

세칭 工專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업전문대학은 출발부터 4년제 공과대학 교육과정을 모방 운영함으로써 본 궤도에서 벗어났고 專門性이 부족한 교육으로 산업계로 부터 외면

을 당하는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난 數年間 모범적인 學事運營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弘益공업전문대학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中堅技術人 양성에 선두주자 역할을 해오으로써 技術人의 전당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弘益공전의 특징이라면 지난 십여년간 時

流에 따라 學科나 學生數의 변동없이 꾸준히 중견기술인 양성에 힘써 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學科과정도 4년제 공과대학의 축소나 모방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獨自의인 教育方針로 전문분야에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洪性眞부학장은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실태와는 달리 독자적인 교육방침으로 산업사회에서 쓸모있는 중견기술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는데 자부심이 대단하다.

弘益공전은 당초 弘益人間的의 建學이념 아래 1963년 1월 28일 弘益대학 병설 홍익공업고등전문학교로 설립됐다. 4년후인 67년 1월 學制변경으로 5년제 홍익공업고등전문학교로, 71년 12월에 다시 2년제 홍익공업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79년 3월에 政府의 초급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 방침에 따라 현재의 弘益工業專門大學으로 개편되어 교육과정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기술교육의 강화는 물론 산업계와 더욱 긴밀한 유대를 가짐으로써 전문분야에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弘益工專은 重化學工業계열을 비롯 工業디자인계열·관광계열 등 3개계열에 11개學科를 수용하고 있다. 중화학공업계열은 건축과·공업화학과·금속과·기계과·요업과·전기과·전자과·조선과 등 8개學科, 공업디자인계열은 공예과·도안과 등 2개學科, 그리고 관광과 등 총 11개 학과에서 매년 1,240명의 중견기술자를 배출하고 있다.

弘益工專은 이러한 교과과정에 공전학생들의 취약점인 기초과학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文敎部가 지정한 모델 커리큘럼 범주내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실습교육과 함께 國家技術資格검정시험(技士 2급)에 대비한 교육도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의 자랑거리중의 하나는 지난해 I BRD차관으로 도입한 走査전자현미경(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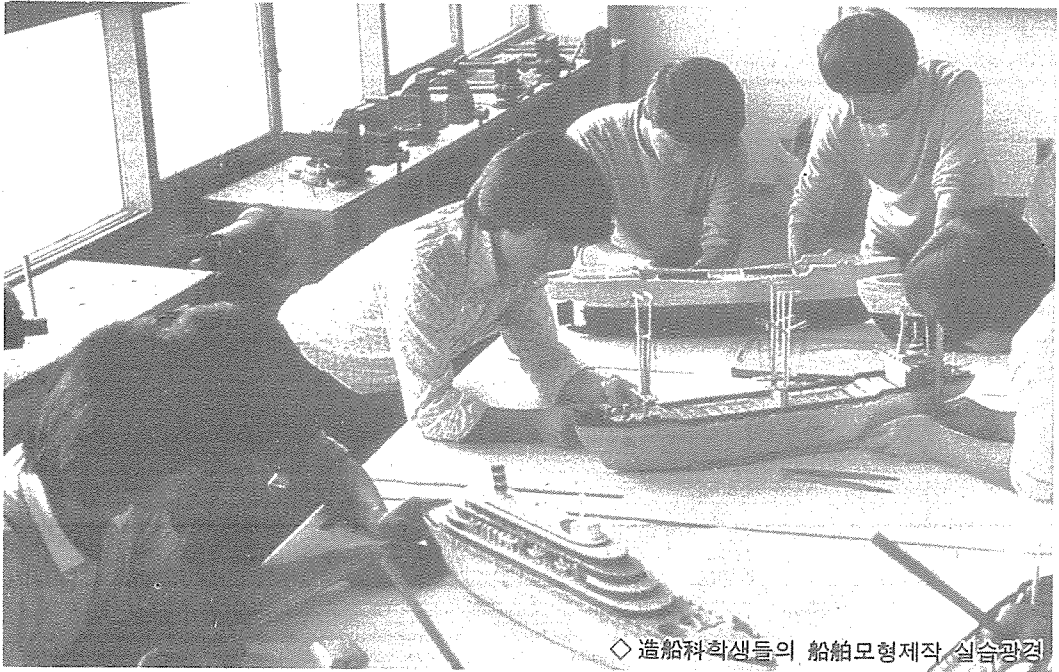
uper S-111A) 등 국내에서 몇대 안되는 최신 실험기자재와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만능연삭기와 비파괴실험기기 등 실험실습에 필수적인 기자재를 다수 확보함으로써 現場 근무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산교육을 시키고 있다.



弘益工專은 또 現 교수요원 70여명 가운데 3분의1 정도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우수한 교수요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반수정도의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으로 있어 명문대학의 교수진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게 洪부학장의 전망.

또한 弘益工專은 產業界와의 연계를 위해 工專으로서 최초로 產學協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각 학과별로 產學協同業體를 선정,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情報 및 資料교환, 상호프로젝트실시, 현장견학 및 실습 등을 통해 산업체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다.

『지난해에는 각 학과별로 산업체인사를 초청, 세미나와 워크숍등을 개최하여 필요한 정보도 교환하고 자문을 받음으로써 상당히 實效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洪性眞부학장은 전문대학의 목표가



◇ 造船科 학생들의 船舶 모형 제작 실습 광경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에 있는 만큼 産學協同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문대학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洪부학장은 또 전문대 출신자들이 社會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긍지를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체를 비롯한 社會의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취업시 응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격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현재 4년제대학의 60~70%에 불과한 교수요원의 대우를 현실화시키고 해외 연수기회 확대 및 연구비증액 등으로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전문대학이 現 學制로 개편된 지 불과 6년여로 아시다시피 歷史가 일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문제점만 들춰 내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洪부

학장은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면에서 불매 현 시점에서 전문대학이 확고한 위치를 다져야 할 때라고 전제하면서 관련 당국에서 財政的·制度的인 뒷받침으로 정책적인 육성책이 先決되어야 전문대학 스스로도 自救策을 강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공업계전문대학은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직업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와 기술인력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매년 배출되는 고교졸업생의 3분의 1을 전문대학이 수용하게 되었고 그중 4분의 1을 공업전문대학에서 수용하고 있다. 해마다 배출되는 10여만명에 달하는 전문대졸업생들이 사회에 발붙이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을 전문 직업교육기관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견기술자를 배출함과 동시에 이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社會의 수용태세가 하루속히 갖추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權光仁 記>